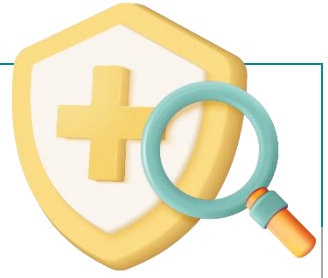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7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7월 20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호재에 둔하고 악재에만 민감한 분위기, 펀더멘털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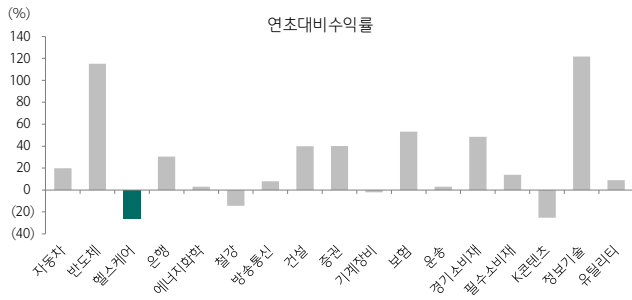
1) 2026년 7월 제약/바이오 산업 중간점검

- 펀더멘털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섹터만 보더라도 악재가 유난히 많았던 상반기였지만, 2분기 끝자락에 한미약품, 오스코텍이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를 보였음에도 두 기업의 주가는 모두 작년 3분기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알테오젠은 에피스의 히알루로니다제 개발 소식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그 히알루로니다제가 기사와는 달리 Enhance 바이오시밀러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주가는 회복하지 못했다.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는 '24년 11월 MSD가 Halozyme에 특허무효심판(PGR)을 충격을 받았을 때 수준인데, 이후 AZ, GSK 등 글로벌 빅파마 달이 이어졌고 특허무효심결(MSD 승)을 받았으며 Keytruda Qlex 전환율이 약 9%에 이른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의 주가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리가캠바이오도 '25년부터 기술이전 소식이 없긴 하지만, '24년 10월 Ono에 기술이전한 때 수준의 주가인데, 이후 첫 환자 투약에 이르면서 141억원 이상의 마일스톤을 수령하였고, IKSUDA, Cstone 등 기존 파트너사들도 순조롭게 임상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저평가 상태이다. 펩톤의 개발 현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부진을 우려했으나, 다행히 당시 그 영향은 거의 없었다. 알테오젠의 주가 폭락은 7/15일이었으나, 7/16일 종가 기준 여전히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제약/바이오의 주가 하락은 섹터를 넘어 시장 전반에 대한 공포 심리 때문으로 보이니, 펀더멘털을 읽을 수 있는 이성을 되찾기를 기다려야 한다.
-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CDMO 및 수출이 미국 관세 정책의 위협을 받았다면, 신약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 상반기 중국 신약 글로벌 out-licensing이 81건이고 약 165조원 규모였던 반면, 한국은 8건으로 약 13조원으로 집계된다. Bio-USA 2026 참관후기 리포트(2026.07.03 발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병원 구조상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임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난 5년 간 집중적인 투자로 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학회 활동으로 기술 신뢰도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중국은 정부 주도적으로 AI 인프라와 바이오 산업을 동시에 투자하며 양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기술이전 경험을 통해 BD 능력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이 글로벌 빅파마에게 중국 바이오의 매력으로 보였을 것이다. 중국의 지역적, 정책적 특수성에 기반한 강점을 빠르게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본력, BD 능력, 국내외 임상 기관에서의 행정적 병목현상을 극복할 경험치 등 기업의 역량 관점에서 국내 종목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삼성에피소홀딩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이 그러했듯 그 성과를 단기에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약 3년 후에는 괄목한 성과를 확인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2) 2026년 7월 추천 종목 중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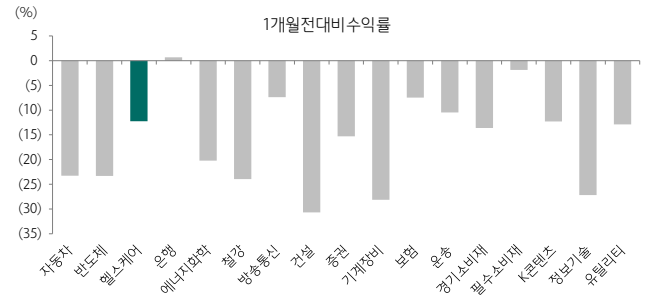
- 7월 코스피 Top pick: SK바이오팜(변경)** 엑스코프리 WAC의 QoQ 성장률이 2.8%→8.5%로 증가했고, 2분기 교환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Q26에 우수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항이 없다면 서프라이즈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Top pick은 한미약품이었으나, 기술이전 선급금을 제외한 실적에 대한 우려와 거버넌스 이슈가 재부각됨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변경한다.
- 7월 코스닥 Top pick: 알테오젠, 올릭스, 리가캠바이오** 1) 알테오젠은 7/16 코스피이전상장 유예와 함께 무상증자 발표(1:0.3), 8/4 MSD 실적 발표에서 Qlex의 매출 성장세 확인, 추가 L/O 기대 등 단기 이벤트 다수. 2) 올릭스는 7/14 R&D 데이터를 통해 ALK7 미만원숭이 데이터 등의 개발 성과를 보여주었고, 4Q까지 탈모치료제 1b 결과 확인, Lilly와의 2상 진입 또는 옵션 행사 기대감 등이 남아 있음. 3) 리가캠바이오도 국민성장펀드의 5천억 투자금의 원활한 납입(7/24), 이후 J&와 공동개발 중인 LCB84의 3Q 내 일부 고형암에 대해 2상 부분 진행 확인, 추가 L/O 기대.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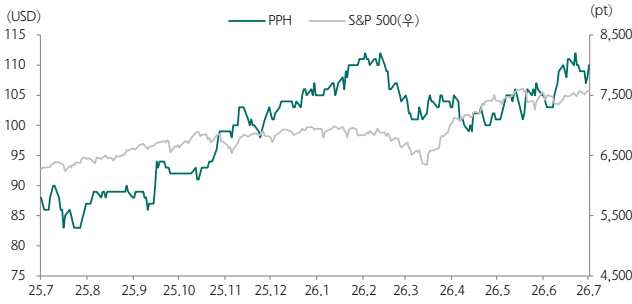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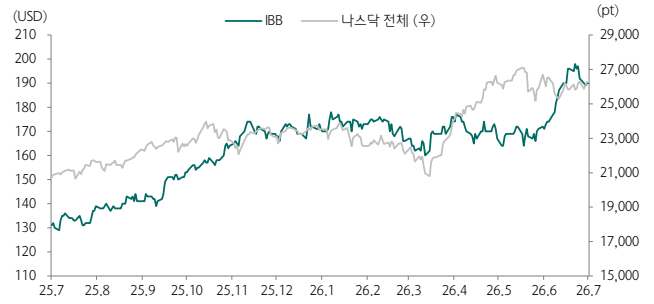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3.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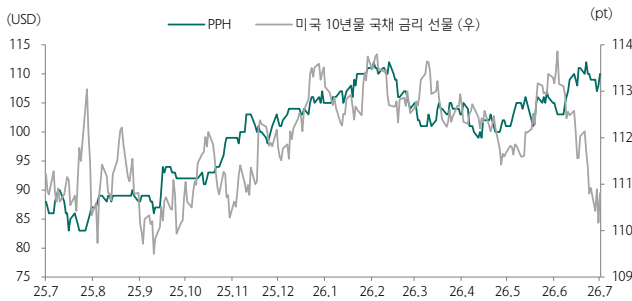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20.15%), Novartis(10.50%), MSD(9.52%), Novo Nordisk(5.57%), Pfizer(4.55%), AbbVie(4.53%), BMS(4.49%), GSK(4.47%), J&J(4.43%), McKesson(4.42%) (*Sanofi, AZ가 TOP10에서 제외됨)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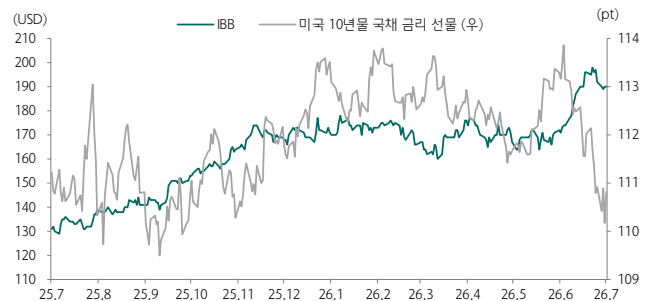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Vertex Pharmaceuticals(7.78%), Amgen(7.57%), Gilead(7.03%), Regeneron(5.06%), Argenx(3.55%), Alnylam(3.12%), Natera(2.89%), Revolution Medicines(2.73%), Illumina(2.19%), Biogen(2.1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P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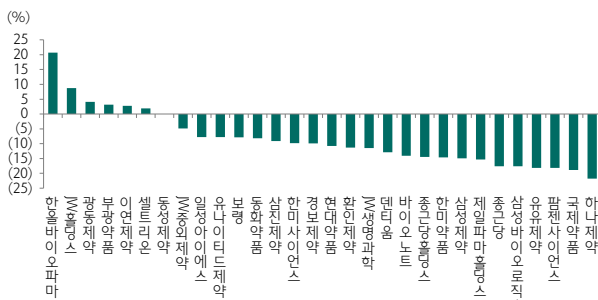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6.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I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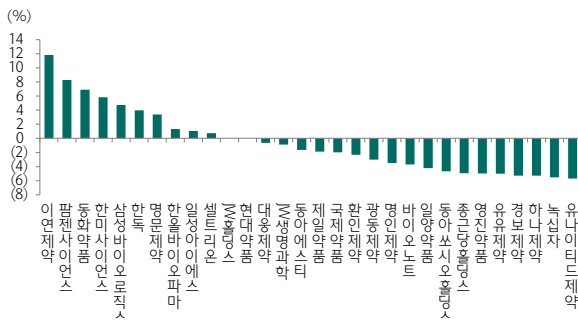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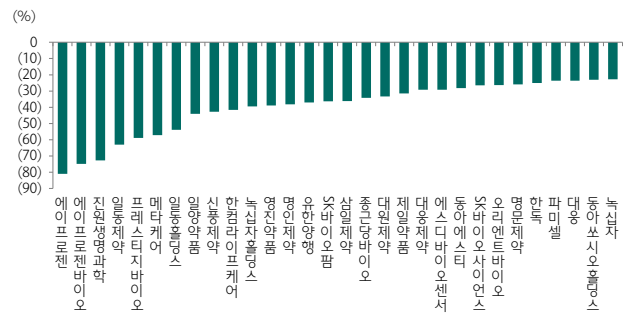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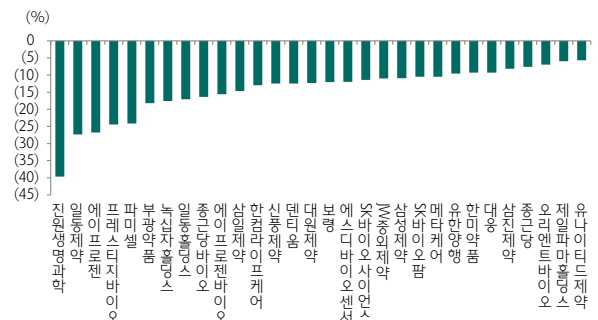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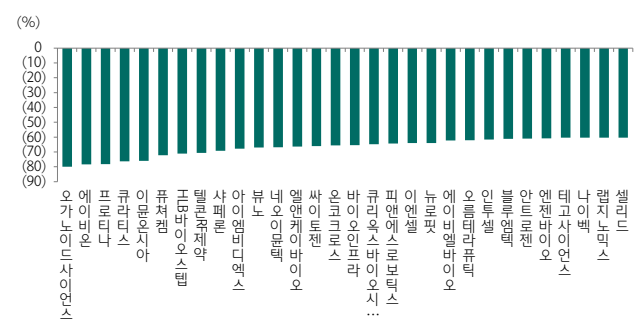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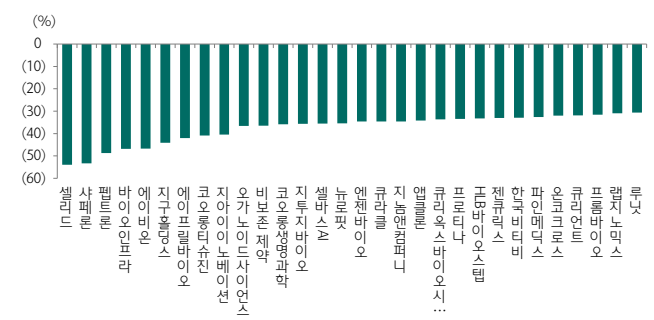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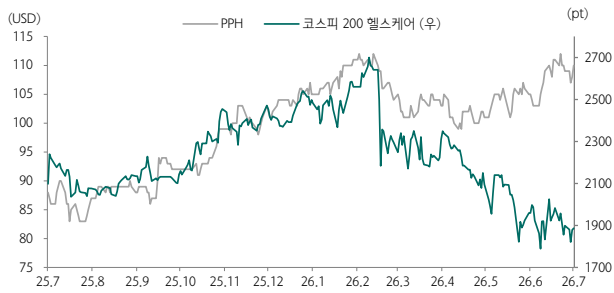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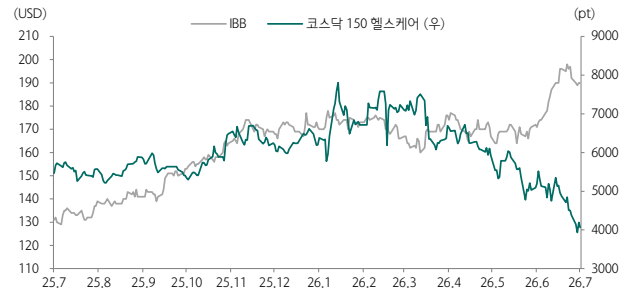
주: 7/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5. 미국 제약사 ETF(PPH)와 코스피200헬스케어 비교



주: 7/16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20.15%), Novartis(10.50%), MSD(9.52%), Novo Nordisk(5.57%), Pfizer(4.55%), AbbVie(4.53%), BMS(4.49%), GSK(4.47%), J&J(4.43%), McKesson(4.42%) (*Sanofi, AZ가 TOP10에서 제외됨)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6. 미국 바이오텍 ETF(IBB)와 코스닥150헬스케어 비교



주: 7/16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Vertex Pharmaceuticals(7.78%), Amgen(7.57%), Gilead(7.03%), Regeneron(5.06%), Argenx(3.55%), Alnylam(3.12%), Natera(2.89%), Revolution Medicines(2.73%), Illumina(2.19%), Biogen(2.1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지난 2주 간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 기준일 7/6 이후)

[7/6] Vertex, 내분비질환 치료제 개발사인 Crinetics 인수 (최대 규모 약 \$10B)

- 인수 계약 구조는 주당 85달러로 102% 프리미엄 부여하고, 총 equity value는 약 \$10B. Crinetics의 핵심 자산은 '25년에 FDA 승인된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PALSONIFY (paltusotine)와 임상3상 중인 선천성 부신과다형성증(CAH) 후기 자산 atumelnant임.
- PALSONIFY는 최초의 1일1회 경구제이고, atumelnant도 1일1회 경구제로 개발 중임.

[7/6] Novartis, ADC 개발사인 Myricx Bio(영국, 비상장) 인수 (최대 규모 \$1.5B)

- 인수 계약 구조는 선금금 \$1.1B, 마일스톤 최대 \$0.4B 지급. Myricx는 기존 ADC의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페이로드 Topo1i와 다른 메커니즘의 페이로드로 ADC를 개발함. 주요 파이프라인은 N-미리스토일트랜스퍼레이스(N-myristoyltransferase, NMT) 억제제(NMT inhibitor, NMTi)를 페이로드로 활용하고, B7-H3와 HER2를 표적으로 하는 두 개의 ADC 후보물질임.

[7/6] Genentech, 유방암 치료제 개발사 Astex(영국, 비상장)와 기술이전계약 체결(\$500M 이상 규모)

- 계약 구조는 선금금 \$25M 선금금, 최대 마일스톤 \$490M 이상, 로열티 별도. Astex가 보유한 fragment-based 신약 발굴 플랫폼으로 유방암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최적화까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이후 전임상과 임상 개발, 허가, 글로벌 상업화는 제넨텍이 단독으로 담당함. 세포주기 조절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정밀항암제 개발할 것.

[7/7] Boehringer, Prime Vector Technologies(PVT)의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도입하여 암백신 연구 개발

- 계약 규모의 선금금과 마일스톤은 비공개. Boehringer는 PVT의 오르프바이러스(Orf virus, ORFV) 플랫폼을 암백신 개발에 활용하는 독점권을 확보. PVT는 암백신 외 감염질환 등 다른 적응증을 개발할 권리는 유지함. Boehringer는 '16년에 oncolytic virus(종양용해바이러스) 개발사인 ViraTherapeutics를 인수하여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VSV) 기반 종양용 바이러스 후보물질 VSV-GP (BI 1831169) 교형암에 대한 임상1상 진행 중 (NCT05155332)

[7/6] GSK, CNS 치료제 개발사인 Alektor(미국, NASDAQ)와 공동개발파트너십 종료

- 2021년 계약 당시 총 계약 규모 \$2.2B, 선금금만 \$0.7B. 25년 전두 측두엽 치매(FTD) 치료제 후보물질인 '라토지네마프(latozinemab)'의 3상 실패로 개발 종료, 26년 4월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인 '니비스네바트(nivisnebart)'의 임상2상 중단으로 인한 결정.
- 한편 Alektor는 자체 개발 BBB 셔틀(ABC)에 기반한 CNS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

[7/8] 브리즈바이오(비상장), 'AA, A' 코스닥 기술성평가 통과 - 약물 전달체 개발사

- 브리즈바이오(BreezeBio, 이전 진에넷)가 'AA, A' 등급을 받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고, 26년 3분기 내지 4개월초 예비심사청구를 제출할 예정. 이 경우 상장은 27년 상반기로 예상됨.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 브리즈바이오는 '2016년 설립되었고, 비지질 친수성 나노입자(non-lipid hydrophilic nanoparticle, HNP) '나노겔럭시®'기술을 보유함. 2024년 로슈(Roche) 제넨텍(Genentech)과 핵산(nucleic acid) 기반 치료제 플랫폼 딜을 체결. 2026년 2월 pre-IPO 라운드 2500만달러를 조달해 누적투자금 총 \$120M(약 1700억원)임.

[7/9] AZ, 중국 Sino Biopharm의 자회사 CTTQ로부터 COPD 치료제 TQC3721 중국 외 권리 확보 (최대 \$2.1B)

- 계약 구조는 선금금 \$0.2B, 마일스톤 최대 \$1.9B, 두 자릿수 로열티 별도. 이번 계약으로 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인 'TQC3721'에 대한 중국 외 제조, 개발, 상업화 독점권 확보. TQC3721은 흡입형 PDE3/4 이중 저해제로, 중국에서는 네블라이저(분무흡입형)로 임상3상, 건조분말흡입제형(DPI)으로 2상 진행 중.

[7/10] 큐로셀, 국산 첫 CAR-T '림카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

-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8월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등을 거쳐야 함. 다른 문제가 없다면 10월 약가 고시 및 첫 처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기존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킬리아는 1회 투여 약 4억원이나, 건강보험 혜택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환자 부담금은 최대 598만 원(평생 1회 한정)임. 큐로셀의 림카토는 "3차 이상의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가능. 회사는 림카토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경우 연매출 900억 원을 전망.

[7/13] 중국 신약 기술이전, 상반기 \$110B (약165조원)로 사상 최대

- CCTV가 NMPA 데이터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혁신 신약 해외 라이선스 계약 규모가 2026년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 26년1월~6월 말 기준 중국의 신약 글로벌 out-licensing은 81건이었고, 이는 이미 2025년 연간 총액의 80% 수준. 반면 한국의 경우 26년1월~6월 말 기준 8건으로 약 12.9조원으로 집계됨.

[7/12] Insilico, China Medical System과 CNS 신약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 체결

- AI 기반 신약 개발사인 Insilico Medicine이 중국 제약사 CMS와 CNS 질환 신약 공동 개발 협력 계약. Insilico는 단계별 성과에 따라 최대 12억위안(약 2600억원)의 마일스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음. 구체적인 규모는 비공개.

[7/15] Insilico, 대만 CDMO 기업인 Bora Pharmaceuticals과도 AI 신약 개발 협력 계약 체결

- Bora Pharmaceuticals는 대만 CDMO 기업으로 이번 계약은 잠재가치 \$2.5B 이상으로 전망. 이번 협력은 제약 개발, 공정 최적화 및 품질 시스템을 포함한 분야에서 자동화 기회를 모색기 위함임. Insilico의 Pharma.AI 플랫폼을 이용하여 신약 발굴과 Bora의 제조, 공급망, 유통 및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Insilico는 7월 한 달 동안에만 Takeda, CMS, Bora의 세 개 회사와 AI 협력 계약을 체결함

[7/14] AZ, Dical(중국)의 EGFR 폐암약 Zegfrovy(Sunvozertinib)에 대한 글로벌 독점권 확보 (최대 \$1.5B 규모)

- 계약 구조는 선금금 \$0.6B, 마일스톤 최대 \$0.9B, 낮은 두 자리 수 판매 로열티 별도
- Zegfrovy는 경구 TKI로써, EGFR 엑손20 삽입(exon20ins) 변이 국소진행성·전이성 NSCLC에 대해 미국 및 중국에서 승인됨.

[7/14] Spero Therapeutics(NASDAQ), Innovent로부터 항-CD40L 항체 신약 SP001(IBI355)에 대한 중국 외 권리 확보 (최대 \$1.1B 규모)

- 계약 구조에서 구체적인 선금금과 마일스톤은 비공개. Spero는 이번 계약으로 중화권을 제외한 글로벌 개발, 제조, 상업화 독점권 확보함. SP001은 3세대 Fc-silent 항-CD40L 단일클론 항체. Spero는 2Q27에 IgG4 관련 질환 대상으로 임상2상을 개시할 계획임. 한편 Innovent는 중국에서 2027년 초 쇼그렌증후군(SJD) 대상 임상 2상을 개시할 계획.

도표 17. 2026년 주요 학회 일정 (추가 확인 후 Biweekly로 업데이트 됨)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비고
7월	07월 01일	ESMO-GI Cancer congress (유럽 종양학회)	ESMO-gastrointestinal cancers annual congress	Munich, Germany	관련기업: 에이비엘바이오
	07월 12일	AAIC (국제 알츠하이머학회)	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London, UK	관련기업: 에이비엘바이오, 동아에스티, 큐라클, 오스코텍(아탈)
9월	09월 12일	WCLC (세계 폐암학회)	2026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Seoul, Korea	관련기업: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에스티큐브, 보로노이
	09월 28일	EASD (유럽 당뇨병학회)	62th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nnual Meeting	Milan, Italy	관련기업: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HK이노엔, 대웅제약
10월	10월 12일	World ADC-USA (세계 ADC학회)	World ADC San Diego 2026	San Diego, USA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0월 23일	ESMO (유럽 종양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Madrid, Spain	관련기업: 한미약품, 리가캠 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에스티큐브, 보로노이 등
11월	11월 04일	SITC (국제면역항암학회)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Phoenix, AZ	관련기업: 셀트리온, 한미약품,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HLB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메드팩토 등
	11월 09일	Bio Europe (바이오 파트너십 유럽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Cologne, Germany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1월 05일	AASLD (미국 간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Denver, CO	관련기업: 디앤디파마텍,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동아ST
	11월 14일	Obesity Week (비만학회)	Obesity Week2026	Washington, DC	관련기업: 한미약품, 디앤디파마텍, 올릭스, 동아ST, 대웅제약 등
12월	12월 04일	AES (미국 뇌전증학회 연례회의)	American Epilepsy Society 2026	Denver, CO	관련기업: SK바이오팜
	12월 16일	CTAD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Boston, USA	관련기업: 오스코텍, 에이비엘바이오
	12월 12일	ASH (미국 혈액학회)	ASH 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New Orleans, LA	관련기업: 오름테라퓨틱, 앰클론, 지씨셀, 네오이문텍 등

주: "관련기업"은 '25년에 참가했거나 파이프라인 상 관련은 있으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기업

자료: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6.07.16 기준, 다음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상승시 음영 표시)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Q25	1Q26	2Q26F	2025	2026F	2Q25	1Q26	2Q26F	2025	2026F
셀트리온	40,883	961	1,145.0	1,244.1	4,162.5	5,326.5	242.5	321.9	400.7	1,168.5	1,780.4
삼성바이오로직스	64,622	1,014.2	1,257.1	1,322.2	4,557.0	5,427.0	476.9	580.8	599.7	2,069.2	2,494.6
삼성에프스홀딩스 (TP: 620,000원)	10,364	nr	453.9	440.8 (F.434.4)	251.7	1,857.8 (F.1,858.7)	nr	90.6	42.4 (F.68.5)	-63.6	316.1 (F.429.0)
유한양행	5,639	579.0	526.8	626.5	2,186.6	2,348.6	49.9	8.8	57.1	104.4	131.1
녹십자	1,435	500.3	435.5	502.8	1,991.3	2,038.7	27.4	11.7	21.0	69.2	74.7
한미약품* (TP: 710,000원)	4,945	361.3	392.9	438.0 (F. 492.0)	1,547.5	1,696.8 (F. 1,753.5)	60.4	53.7	104.2 (F. 121.5)	257.8	310.6 (F. 303.6)
대웅제약	1,412	405.5	377.8	425.9	1,570.9	1,663.0	57.9	22.2	59.4	196.8	214.3
HK이노엔	1,099	263.1	258.7	269.7	1,063.2	1,099.6	19.5	33.2	30.1	110.9	130.2
종근당	943	434.9	447.8	476.2	1,692.4	1,883.4	23.6	14.1	20.1	80.6	78.4
휴온스글로벌	347	212.7	197.0	nr	847.5	nr	25.3	9.2	nr	90.6	nr
동아에스티	350	194.0	203.6	205.7	808.8	837.0	-5.8	7.8	8.4	0.6	38.0
보령	712	251.5	255.4	257.6	1,017.4	1,057.7	25.4	20.2	20.9	65.1	80.2
SK바이오팜 (TP: 150,000원)	6,218	176.3	227.9	233.8 (F. 224.5)	706.7	958.9 (F. 929.3)	61.9	89.8	84.5 (F. 76.1)	203.9	337.7 (F. 302.6)
동국제약	872	233.5	251.0	266.9	926.9	1,061.9	22.1	27.3	27.2	96.6	115.4
에스티팜 (TP: 210,000원)	2,595	68.3	67.0	99.9 (F. 103.4)	331.7	417.6 (F. 427.7)	12.9	11.5	18.7 (F. 20.8)	54.9	78.5 (F. 85.8)
셀트리온제약	1,767	131.3	132.1	nr	536.4	nr	15.5	12.9	nr	56.1	nr
JW중외제약	565	191.1	199.9	nr	775.3	nr	25.0	33.6	nr	94.5	nr
일동제약	450	138.5	142.0	143.7	566.9	579.3	0.6	9.2	11.2	19.5	38.9
대원제약	179	143.9	158.1	155.4	605.4	640.4	-1.4	4.4	5.6	3.5	24.4
제일약품	153	137.6	130.3	nr	567.2	nr	4.7	0.4	nr	20.7	nr
삼천당제약	4,319	56.9	64.9	nr	231.8	nr	-1.1	5.5	nr	8.5	nr
바이넥스	220	44.5	35.3	49.2	168.5	186.1	1.0	-9.0	-0.5	-4.5	-4.4

주1: 1Q26→2Q26F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주3: 시총 상위 종목 중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은 제외

주4(*): 한미약품 붉은색 셀, 6월30일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기술이전에 따른 선급금 1,129억원이 2분기에 모두 인식됨에 따라 2Q26 실적은 컨센서스와의 차이가 클 전망

자료: QuantWise, FnGuide,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유지): 노조 분쟁이 끝나고, CAPEX 투자 또는 주주 성과가 있어야 할 것 (변동 없음) (실적발표: 7/23)

- '26년 가이드نس: 매출액 +15~20% (원/달러 환율 1,400원),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은 미반영. 이익 가이드نس는 제시하지 않음.
- '26년 2분기 컨센서스: 매출액 1조3,231억원(YoY+30.5%), 영업이익 5,982억원(YoY+25.4%, OPM 45.2%). 노조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회사 추정치 1,500억이고, 이는 3Q에 반영될 예정.
- 한편, 1Q 내 록빌 공장 인수 마무리되어 가이드نس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 CAPEX 확대, 주주 공시 등을 기대하고 있음. 다만 그 전에 고객사 신뢰도 회복 및 투자자의 투심 안정을 위해 노조 분쟁 해결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전망

삼성에피소홀딩스 (TP 620,000원, 유지): 서프라이즈, 이 다음 지켜볼 사업 확대 (변동 없음) (실적발표: 7/24)

- '26년 가이드نس: 바이오에피스 기준 매출액 +10% 이상, OPM 20% 이상 유지.
- '26년 1분기 실적: 매출 4,549억원(YoY+14%), 영업이익 1,440억원(YoY+13%, OPM32%). 영업이익률이 연간 가이드نس(20% 유지) 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이번 분기에 Biogen 향으로 SB4(엔브렐B5)의 유럽 판권 연장에 따른 마일스톤 473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일시적). 추가 마일스톤은 3분기 예상.
- 에피소홀딩스는 연간 1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IND 신청을 목표로 하나, '26년은 없을 것으로 예상. 최근 중국에 R&D 자회사인 "Samsung Bioepis China" 설립하고, 순수 연구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힘.

알테오젠 (TP 580,000원, 유지): 코스피 이전 상장 유예 및 무상증자 결정 (실적발표: 8월5~7일 중 예상)

- 할로자임의 특허무효심판(PGR)은 최종 무효 심결로 종료. 남은 14개도 패밀리 특허도 순차적으로 무효 심결로 종결되는 분위기. 독일 특허무효예비판결에 따라 가져온 명령 취소 건이 Pending 중이나, 영국은 할로자임 측 특허 포기로 종결.
- Keytruda Qlex의 실적 확인은 MSD 2Q26 실적 발표일인 8/4로 예정됨. J-Code 효과(보형청구가능)로 TRx와 WAC 모두 MoM 성장 중(Integrated WAC 3월→4월 76%, 4월→5월 43%, 5월→6월 34%).
- 7/16일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 유예 확정 및 무상증자(1:0.3) 추진. 코스닥에 남는 것을 결정하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를 받을 확률 높아짐. 높은 시가총액, 안정적인 영업이익률, 기술이전 실적 등 승강제 프리미엄 요소(추정)를 모두 갖추어, 국민성장펀드, 프리미엄 군 편입을 모두 기대할 수 있음. 7월 내 기술이전이 있다면,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단단히 받쳐줄 것.

한미약품 (TP 710,000원, 상향): 선급금을 제외한 2분기 실적 부진 우려로 주가도 쉬어 가는 구간 (실적발표: 7/28)

- '26년 가이드نس: 매출액 10% 이상 성장, 이익률 15% 이상 달성, 기술이전 1건 이상 달성(완료)
- '26년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매출액 4,414억원, 영업이익 1,056억원. 현재 컨센서스는 6/30 수령한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기술이전 선급금이 제외된 실적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실적 발표일에 컨센서스에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될 가능성 높음. 다만 북경한미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고, 한미약품 별도의 실적도 자회사의 부진한 실적을 커버하기 부족한 상황이라 추정됨.
- 기술이전 1건 이상이라는 가이드نس가 이미 달성되었으나, 논의 중인 파이프라인이 많으니 하반기까지 추가 L/O 기대감 유지. 우선 근육종양제 HM17321의 임상1상 SAD 데이터 공개가 7-8월 중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삼중작용제 HM15275도 미국 임상1상을 종료 후 2상을 진행 중이므로 두 파이프라인 모두 3Q 기술이전 가능성 높다는 의견을 유지함.
-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지분 2.5%를 나우아이비22호펀드에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다시 두각 되면서 투자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분위기

SK바이오팜 (TP 150,000원, 유지): 엑스코프리 WAC 값이 예사롭지 않은(긍정) 추세를 보이는 중 (예비실적: 7/20일~주간, 실적발표: 8월 초 예상)

- '26년 가이드نس: 엑스코프리 US 550mn~580mn\$(YoY+29%, 환율 1395원/달러), 기타매출 1,100억원(YoY+44%). 신약 후보물질 5개 이상 추가됨에 따라 R&D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이드نس 상 연간 예상 판관비가 5,700억원으로 증가(R&D만 전년 대비 550억원 증가)
- Integrated WAC 기준, 지난 분기의 QoQ 성장률은 2.8%였는데, 이번 분기 8.5%로 크게 성장함. 2Q에 고환율이 지속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회사는 하반기 2nd 프로덕트 도입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음.

리가캠바이오 (TP 220,000원, 유지): 7/8 R&D 데이 개최, 국민성장펀드 투자 유치의 비하인드가 궁금해 (변동 없음)

- 상반기 기술이전이 부재한 상황이나, '26년은 Ono(LCB97; 7/9 유입), SOTIO, IKSUDA의 신규 임상1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 높음. 상반기 데이터 발표를 미룬 파트너사를 대다수 하반기(10월 ESMO, 12월 ASH 등)에 업데이트가 있을 가능성 높아, 리가캠바이오에 대한 하반기 Top pick을 계속 유지함.
- 하반기에는 1) HER2 ADC (LCB14)의 중국3상 최종 결과 확인 및 글로벌 임상1b의 Enhertu 내성 유발암 환자를 포함한 중간 결과 발표, 2) ROR1 ADC (LCB71)의 임상1b 추가 코호트 중간 결과 발표, 3) CD19 ADC (LCB73) 임상1a, B7-H4 ADC (LNCB74)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할 예정. 4) TROP2 ADC (LCB84)의 임상1/2상 업데이트가 있다면 추가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 단기적으로는 7/8 R&D 데이에서 소통될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음. Bio-USA에서 J&J가 특별히 일부 고행암(구체적인 고행암 명은 언급X)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한 바 있어 LCB84의 모멘텀이 더욱 부각됨. P1/2의 P1 Part에서 확인된 일부 고행암에 대해 3Q26 중 P2 Part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됨. 그 외 국민성장펀드 투자 유치의 근거가 될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MASH 기술이전과 비만/CNS 신약의 파트너십 성과도 기대 (변동 없음)

- 5/27일 MASH 치료제 DD01의 임상2상 48주 간 생검 결과는 성공적. Boston Therapeutics는 GSK에 Efimosfermin을 약 3조원 규모에 매각한 사례가 있음. M&A 사례로 Novo Nordisk가 Akero를 인수할 때 최대 7.8조원 규모, Roche가 89bio 인수할 때 최대 5.3조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아직 추가 upside가 충분하다는 판단. 기술이전 시기는 글로벌 자문사에 confidential deck이 전달된 후 절차가 진행됨을 고려했을 때, DD와 Term Sheet을 논의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4Q26~1Q27로 추정.
- MASH 기술이전 전에는 Pfizer와의 경구용 펩타이드 제형 개발 관련 협력 강화와 NLY02 (퇴행성 신경질환 타깃, RIPK2 선택적 저해)에 주목. NLY02는 공동개발사 퍼스트바이오가 5~6월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하는 계획을 미뤘는데, 기술이전 시기가 미뤄졌기 때문이라 판단함(기술이전 없이 상장 어려운 분위기). 퍼스트바이오의 코스닥 예비심사청구시기를 주시할 것.

지아이이노베이션 (Not Rated): 5월 ASCO GI-101/101a 발표 성공적, 3Q에 102 단독 투여 임상도 발표할 것 (변동 없음)

- GI-101/101a 단독 및 키트루다 병용 1상 (표준치료 실패 환자 단독 36명, 병용 48명 등록) 데이터 발표: 단독의 경우 면역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방광암 환자 PFS 13.9개월 (vs. 파드셉 PFS 6개월)/ 신장암(n=10)에서 ORR 40%, DCR(질병통제율) 70% 확인, PFS 미도달/ 면역항암제 내성 극복 가능성 입증하였고, 4차 이상으로 투약 중이나 ORR 40%를 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판단. 현재 2상 준비 중
- GI-102: ①SC 단독 투여 1b상, ②GI-102+키트루다 투약 2a상, ③GI-102+엔허투 투약 2a상에 대해 '26년 내 임상 발표 예상. ①번 단독 투여 1b상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환자 50명 예상), 임상 종료 후 Top line 확인되는 대로 공시가 있을 것이니 학회 일정과 무관하게 R&D 타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3Q 예상).
-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GI-301의 임상2상(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약물군 및 위약군으로 투약하고, 한국/유럽/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 진행 계획)도 순조롭게 환자 모집 중이고, 기술이전도 꾸준히 시도 중.

인투셀 (Not Rated): 본계약 또는 마일스톤 수령 이벤트 대기 중 (변동 없음)

- 에픽스홀딩스가 NxT3를 적용한 ADC를 방광암에 대해 임상1상을 진행하기 위한 IND를 12월2일 FDA 신청하여 승인됨. OHPAS 링커와 공동개발한 NxT3 적용되었음에도 옵션 행사에 따른 본계약(또는 프로젝트 딜)을 체결이나 마일스톤 등 이벤트가 없는 것이 추가 부진한 이유로 판단.
- 자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 임상1상 IND도 승인된 상태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니 주목할 가치가 높음. 회사는 새로 꾸려진 BD팀을 통해 Bio-Europe, Bio-China, Bio-USA 등 상반기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꾸준히 기술이전을 시도할 것.

셀비온 (Not Rated): 첫 투약 7월로 조정, 키트루다 병용 성과가 다음 기대할 이벤트 (변동 없음)

- 5월 ASCO에서 공개된 데이터 요약: 총 91명의 환자 등록, 3L 이상의 PSMA에 대한 결과로 전체 환자군에서 mOS 13.31개월, 중앙 rPFS 11.04개월 확인됨. VISION 연구에서 mPFS 8.7m, mOS 15.3m였음을 참고. 그러나 VISION 연구는 SoC 투약을 허용한 반면, Lu-Pocuvotide는 더 이상 표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함. 또한 림프구 부착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키트루다 병용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 판단. 또한 폐전이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더욱 약효가 강하게 나타남. rPFS 차이가 PCWG3-modified 기준에서만 유의하게 관찰되어, 골 전이가 흔한 mCRPC에서는 PCWG3-modified 기준으로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 1상 IND 승인받았고, 첫 투약 시기 7월로 조정.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플루빅토 단독 투여 대비 mOS를 추가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Lu-Pocuvotide는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펩트론 (Not Rated): Tirzepatide 개발은 진행 중인 건가, 아닌 건가

- Lilly가 원하는 장기지속형 제제에 활성물질로 Tirzepatide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이 짙어지며, 주가가 크게 하락함. MTA 계약은 10/7까지인데, 통상적으로 MTA 계약이 종료되면 일정 기간 내 양사가 주고 받은 (미공개)물질은 폐기해야 하므로, Lilly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10/7일 전 새로운 MTA 계약이 체결될 것. 따라서 여전히 10/7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추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한편 회사는 해당 사건 이후 '1) 오송 제2공장 추진 현황: 건축(변경)허가 절차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 7월부터 8월 중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 이후 9월 중 착공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2) PT403 개발 진행 현황: 미국 FDA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505(b)(2) 허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국내 IND 신청을 위한 제반 자료 준비 중'이라 소통함

인벤티지랩 (Not Rated): BI 추가 계약에 따른 제형 전달 완료, 3Q 본계약과 CDMO 매출 기대 (변동 없음)

-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두 번째 제형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첫 번째 제형에서 확인된 스케줄 대로라면 2Q26 내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기대하는 타임라인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3분기에 본계약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음.
- 유럽 소재 파트너사와 제조 생산 시설 구축 투자금을 포함하여 위탁생산계약을 논의 중(2가지 품목, 수백억원/연 규모 예상). 유럽 현지 site로의 Scale-out도 함께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안정적인 Cash 창출은 물론, CDMO 기술과 Scale 확장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지투지바이오 (Not Rated): 에피스와 공동개발계약 체결로 높아진 기대감 (변동 없음)

- 1,500억원 규모의 CPS/CB 자금 조달에 성공(발행일 2026년3월23일). CPS 750억원, CB 750억원. 삼성에피스홀딩스의 CB 200억원 투자도 이어짐.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넥스랩, 지투지바이오 간의 3자 계약도 체결함 (장기지속형의 Semaglutide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
- 4/20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하였고, Semaglutide 독점 개발계약에 따라 글로벌 빅파마와의 공동개발 논의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음.

에스티팜 (TP 210,000원, 유지): HIV 치료제의 임상2a상 발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와 수주 공시가 남았다 (실적발표: 7/27)

- '26년 2분기 컨센서스: 연결 기준 매출액 999억원(YoY+46.4%), 영업이익 187억원(YoY+44.7%, OPM 18.7%)이나, 현재 컨센서스는 해외 CRO의 실적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CRO에서 매출과 이익이 직전 분기 수준만 되더라도 서프라이즈 달성할 것. 당사는 해외 CRO의 연간으로 영업손실을 전망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직전 분기에 영업이익 7억원을 달성한 바 있음.
- '26년 6월 말, 총 수주잔고 5,308억원 역대 최대. 매출 4Q>2Q>3Q>1Q 예상, 상업화 물량 높아져 영업이익을 안정화 효과 확인하였으므로, '26년 영업이익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하반기 CAPEX 확대 소식도 있을 예정으로 연간 기대 요소 다수. 올해 하반기 고객사 2곳(동맥경화증, 만성B형간염 치료제)의 임상3상 타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동시에 수주가 들어오지 않아도 주가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음.
- HIV 신약 후보물질인 Pirmitegravir의 임상2a상(미국) 타라인 발표: 1) 전체 용량 (200 mg, 400 mg, 600 mg)에서 통계적 유의한 바이러스 감소 확인 (p-value<0.0001); 2) 10일간 치료에서 TEAE 60%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경증이고 Grade 3 이상의 치료 이상반응, 치료 중단, 사망 사례 없음.

올릭스 (Not Rated): R&D day에서 꾸준한 개발 성과를 도출 중임이 확인됨, 하반기는 임상 결과로 기술력 재확인

- 7/8 R&D day에서 장기별 표적 유전자 억제 플랫폼 “오아시스 듀오”를 포함하여 지방세포를 직접 타겟하는 OLX501A의 비만 원인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최근 기술개발 성과를 투자자들과 공유함. 하반기에 Lilly와 MASH/비만 치료제 개발 계약에 따른 추가 성과 (Lilly의 옵션행사), 탈모치료제 OLX104C의 1b상 종료 및 2a상 진입(27년 내 2a 상 종료 목표), 유베르나의 시장 출시 계획 등을 언급하여 여전히 4Q까지 이어서 기대할 요소가 많이 남아 있음.
- 6/1일자, 로레알(L'Oreal)그룹 산하 VC 펀드인 BOLD(Business Opportunities for L'Oreal Development)에 약 105억원(70,367주), 미국 브룩데일 글로벌 오퍼튜니티 펀드(Brookdale Global Opportunity Fund), 미국 브룩데일 인터네셔널 파트너스(Brookdale International Partners)에 각각 651억원(435,500주), 350억원(234,500주)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결정 (1년 간 보호혜수). 로레알의 SI 성격인 BOLD의 투자 규모가 100억원 대에 불과하여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은 듯 하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면 이보다는 더 큰 규모로 투자를 감행했을 것이라 판단. 이번 투자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발 성과나 추가 계약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알지노믹스 (Not Rated): HCC 치료제의 RECIST 값 update 중, 하반기 임상 업데이트 기대

- 최근 Regeneron이 FDA로부터 세계 최초로 난청 유전자 치료제인 “Otarmin (AAV 기반)”을 승인 받으며 인공 와우를 대체할 치료제 등장함. Lilly도 최근 동향을 보아 유전자치료제 및 청력 상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Lilly와의 협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
- 한편 4월 AACR에서 임상1상 중간결과 공개한 간암 치료제 RZ001가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패스트트랙에 이어 첨단재생의약치료제(RMAT) 지정도 획득함. RMAT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예비임상 결과를 통해 미충족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기에, 최근 임상2상 중간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짐. mRECIST 기준 ORR 61.5%, CR 23%/ RECIST 기준 ORR 38.5%(confirmed), 46.2%(unconfirmed)이었음. 여기서 RECIST 기준 Unconfirmed 환자가 추적 관찰에서 Confirmed 반응으로 확인됨. mRECIST는 활성 암세포의 감소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 관찰시 RECIST도 반응이 확인되는 사례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함.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3Q26-4Q26 이벤트(2026.07.16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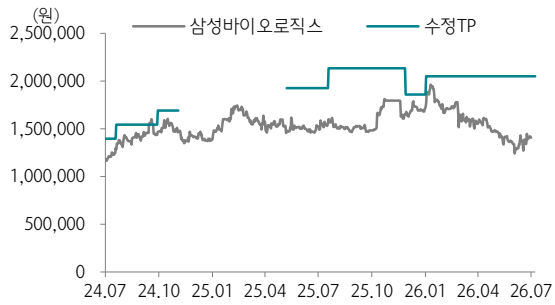
(단위: 원)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3Q26	4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50,000	1,396,000	46.8%	2Q26 실적발표 7/23 - 가이던스 상향, CAPEX 확대, 수주, 노사 분쟁 종료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초	CAPEX 확대: 미국 록빌 공장 또는 6공장 증축
삼성에피소홀딩스	620,000	396,000	56.6%	2Q26 실적발표 7/24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초 - ESMO 관련	자회사 확대, 학회 발표 등 주목
알테오젠	580,000	276,500	109.8%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 기대(투자, 승강제 등) 8/4 MSD 실적발표	-	- 코스닥 잔류 및 무상증자 결정 (7/16) - J-code 발표로 인한 처방 수 및 WAC 상승 확인됨(4월부터 MoM 상승 중)
한미약품	710,000	386,000	83.9%	2Q26 실적발표 7/28 - HM17321(근육증가)의 SAD 데이터 공개 - 에피노페그듀타이드(MASH) P2b Top line 발표 -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허가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초 - ESMO 관련	6/1 소네페글루타이드의 L/O로 가이던스 달성하였으나, 추가 L/O 전망 3Q26 내 MASH 학회 발표하는 경우 9/28 EASD 유력 (간 질환 주요 학회는 11/5 AASLD) - 에페글레나타이드 본격적인 판매는 27년부터 기대
SK바이오팜	150,000	79,400	88.9%	2Q26 실적발표 8월 초 예상	3Q26 실적발표 10월 초 예상	2nd Product 도입 기대
리가캠바이오	220,000	103,700	112.2%	7/24 국민성장펀드 납입일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주 (승강제)	12월 ASH 학회 발표 - ESMO 관련	7/8 R&D day 종료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 임상 단계 상승 예정 파트너(마일스톤 수령): Ono(LCB97), SOTIO, IKSUDA
에스티팜	210,000	124,300	68.9%	- 고객사 2곳 3상 탐라인 발표 - 수주 기대 (혈액암 추정)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주 (투자, 승강제 등)	-	- Pirmitegravir 2a상 데이터 발표 (7/15) - 하반기 고객사 2곳 3상 탐라인 발표 기대(동맥경화증, 만성B형간염)
디앤디파마텍	NR	68,700	-	NLY-01 L/O 기대	- DD01(MASH) L/O 기대 (11월 말~12월) - Pfizer와의 용역 계약 종료일 11/30	Pfizer와의 비만 개발 현황 업데이트될 것
지아이이노베이션	NR	7,320	-	GI-102 SC제형(단독) P1b 결과 발표	ESMO 관련	- GI-102: SC제형(단독) P1b, 키트루다 병용 P1/2,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단독은 1H26, 그 외 '26년 내 데이터 확인 예상)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올릭스	NR	136,600	-	-	- Lilly의 P2 진입 확인 및 옵션 행사 - OLX104C(탈모) 1b상 결과 - 유베르나(탈모예방화장품) 시장 출시	7/14 R&D day 종료
알지노믹스	NR	31,550	-	신규 L/O 기대	ESMO 관련	ESMO 채택 시 교묘세포종 데이터 공개할 것으로 예상
인투셀	NR	22,000	-	본계약/마일스톤 수령 등	ESMO 관련	학회 발표 보다는 파트너쉽 행사를 통한 L/O 논의(Bio-USA/ Europe/ China 등)에 집중할 것
셀비온	NR	13,210	-	국내 조건부허가 승인(GIFT)	-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1H27 이후 예상)
펩트론	NR	119,200	-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MTA 계약 종료 10/7 주의)	-	Lilly와의 평가기간은 정정된 공시 상 최대 '26년 10월7일로 연기됨
인벤티지랩	NR	33,650	-	- 신규 L/O 기대 - BI의 제형에 대한 피드백 기대 - V사의 동물용 장기지속형 CDMO 계약 체결 기대	-	-
지투지바이오	NR	31,300	-	신규 L/O 기대	-	-

자료: 각 사,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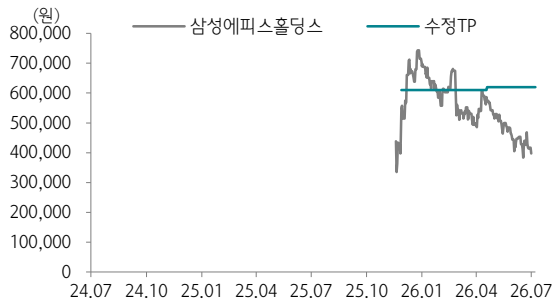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7	BUY	2,050,000		
25.12.3	BUY	1,860,000	-8.44%	-3.76%
25.7.24	BUY	2,134,029	-24.69%	-15.03%
25.5.13	BUY	1,927,985	-21.56%	-16.03%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692,506	-10.08%	3.04%
24.7.25	BUY	1,545,331	-7.83%	3.52%
23.10.5	BUY	1,398,157	-18.88%	-7.05%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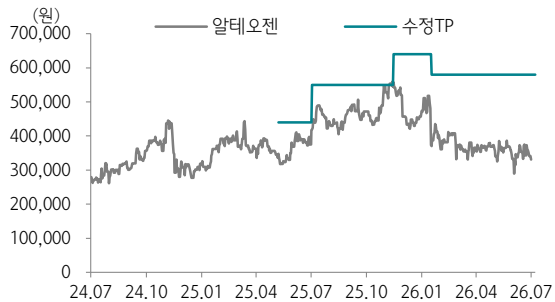
삼성에피스홀딩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24	Neutral	620,000		
26.2.9	Neutral	610,000	-8.06%	11.64%
25.12.3	BUY	610,000	5.08%	21.8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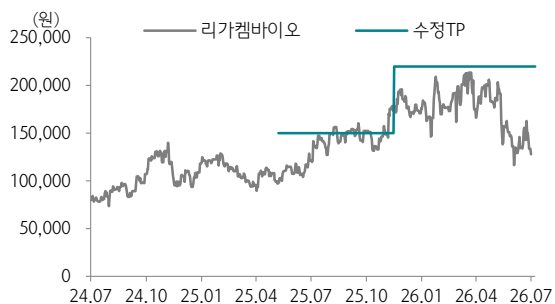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2	BUY	580,000		
25.11.20	BUY	640,000	-26.04%	-15.31%
25.7.8	BUY	550,000	-14.86%	1.64%
25.5.13	BUY	440,000	-16.59%	-5.23%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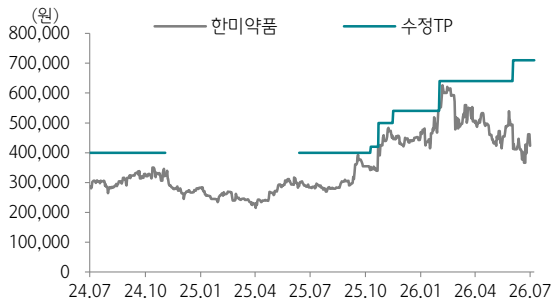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220,000		
25.5.13	BUY	150,000	-8.77%	19.00%
23.11.16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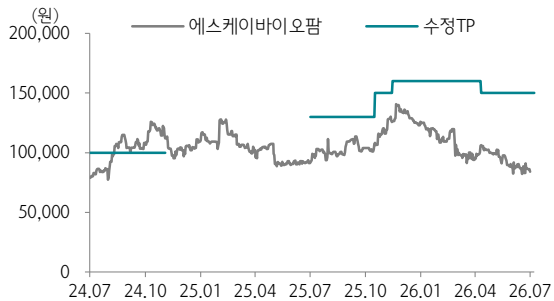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6.8	BUY	710,000		
26.2.6	BUY	640,000	-20.20%	-2.19%
25.11.21	BUY	540,000	-15.90%	0.19%
25.10.28	BUY	500,000	-10.58%	-3.40%
25.10.15	BUY	420,000	-15.30%	1.90%
25.6.18	BUY	400,000	-24.18%	-1.75%
25.6.9	Not Rated	-	-	-
25.4.16	담당자 변경	-	-	-
24.1.10	BUY	400,000	-26.21%	-11.75%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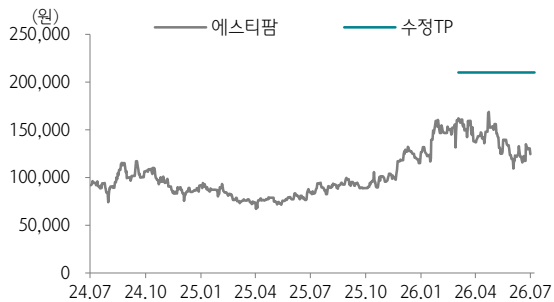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16	BUY	150,000		
25.11.20	BUY	160,000	-27.89%	-12.06%
25.10.22	BUY	150,000	-20.38%	-13.13%
25.7.7	BUY	130,000	-21.21%	-12.69%
25.4.16	담당자 변경	-	-	-
23.11.10	BUY	100,000	-2.17%	27.9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티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3.9	BUY	210,00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7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7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7%	2.73%	0.00%	100%

* 기준일: 2026년 07월 04일